

## 표준 중세국어문법론

고    영    근    저

신국판 369년. 1987. 탑출판사

李    賢    熙

(한신대 교수, 국어학)

15세기 국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한 문법서가 몇 안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이에게나 배우는 이에게나 안타까운 일이다. 학문 연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의 이론과 설명이 있을 수 있겠으나, 통설적인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로 구성된 교재도 필요한 것이다. 이런 점에서 본서는 반가운 출판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. 본서는 머리말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198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 문법 통일안의 체계와 용어에 준거하여 15세기 국어의 문법 전반을 다룬 것이다. 저자의, 남 기십 선생과의 공저인 「표준 국어문법론」(1985)과는 자매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.

본서는 3편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 뒤에는 연습 문제, 참고 문헌이 붙어 있다. 또한 ‘붙임’으로 사전 및 문법서 목록과, 문법 연구 자료의 간략한 서지 문헌적 정보를 담고 있으며 문법 용어와 문법 형태의 찾아보기가 있다. 제 1편은 총론으로 문법 학습에서 알아 두어야 할 예비 사항들이 담겨 있으며(1장~4장), 제 2편은 형태론(5장~10장), 제 3편은 통사론(11장~13장)으로서 군데군데 「표준 국어문법론」과 해석을 달리하는 곳도 없지 않으나(p. 174, 317), 대체로 전체 골격은 변함없다.

본서는 예문을 통해 문법 현상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참고 문헌을 통해 각 주제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. 또한 본서는 최근까지 이루어진 중세국어 문법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현대국어 문법에 준거하여 설명되어 있기도 하다. 이것은 저자가 중세국어의 기술과 설명에서 취하는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다. 이런 태도는 이미 저자의 「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」(1981)에서도 보였던 것이다. 또한 본서는 철저히 공시적 분석과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다. 가능하면, 역사적·통시적 설명을 유보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. 예를 들자면, ‘나모’의 교체형 ‘남’의 설명에서 어간말 모음탈락과 더불어 ‘ㄱ’가 덧생긴다는 것(p. 92)이나, ‘모르-’의 활용형 ‘몰라’의 설명에서 모음탈락과 더불어 ‘ㄹ’가 덧생긴다는 것(pp. 106~7) 등의 기술이 그것이다. 기저형 내지 재구형으로 ‘\*나모’ ‘\*모롤-’ 등을 설정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한 해석을 취하지 않고 있다. 관형사형 어미(p. 47, 127, 193)와, 의문형 어미 ‘-나다’(p. 124, 294), 용언의 불규칙 활용(pp. 109~114) 등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볼 수 있다.

본서의 내용은 지면 관계상 본론인 형태론과 통사론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한다. 제 5 장은 형태소의 분석 기준, 중세국어 품사 분류(9품사)의 실제 등으로 되어 있다. 특히 단어의 개념 규정(pp. 55~6), 형용사의 동사로의 전성(p. 58) 등은 잘 흥미할 필요가 있다. 제 6 장은 체언과 조사를 다루고 있는데 ‘거기, 게, 손터’ 등을 후치사로 보지 않고 부사성의 존명사로 파악하는 점(p. 64)은 저자의 기본 태도와 관계있다.

제 7 장은 활용론으로서, 활용어의 갈래로 동사·형용사·서술격 조사의 구분이 문법 서술에 이득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동사와 형용사가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(pp. 96~7). 특히 협주의 한자 뜻풀이 형식과 관련해서 그 가능성을 찾은 것은 흥미롭다. 능격동사를 피동사와 관련시켜 한 언급(pp. 98~9, 218~221)은 독특한 서술로 주목된다. 용언의 규칙적 활용은 어간과 어미의 자동적 교체를 말하는데(p. 105)

현대 문법의 ‘으’ 불규칙에 소급되는 ‘크-’나, ‘르’ 불규칙과 ‘러’ 불규칙에 소급되는 ‘다르-’, ‘모르-’ 등의 활용도 여기에 포함된다(pp. 105~7). 그의 자음동화에 의해 어간이 교체되는 것(p. 108의 ‘눅넌’ 등은 ‘논넌’ 등의 오기인 듯하다)이나, 성조가 바뀌는 현상 등과(p. 108), 어미 ‘-ㄴ, -ㄹ, -며, -시-, -이(있)-’가 ‘ㄷ’ 외의 받침으로 된 어간 아래에서 매개모음 ‘으/으’가 삽입(상절 : 서명자)되는 현상도(p. 109) 여기에 속한다.

어간의 불규칙 활용은, 현대 문법의 ‘스’ 불규칙, ‘nis’ 불규칙, ‘ㄷ’ 불규칙의 소급형들과, ‘시르-’류, ‘잇-’류, ‘니-’류, ‘주-’류 등이 있다. 저자는 ‘짓-’, ‘덥-’을 기본 형태로 잡고 모음 어미 앞에서 교체되는 이형태가 ‘짚-’, ‘뿔-’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서(pp. 109~111), ‘짚-’ 등을 기본 형태로 잡아 설명하는 견해와는 대척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. 그런데 특히 ‘웃-’의 경우(p. 110, 146, 157), ‘웃-’을 기본 형태로 보아야 파생어 ‘웃보-’가 쉽게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. 어미의 불규칙 활용으로는 서술격 조사와 선어말 어미 ‘-리-’ 뒤에서 ‘ㄷ’ 계열 어미가 ‘ㄹ’ 계열 어미로 바뀌는 현상, ‘ㄷ’와 부음 y 뒤에서 ‘ㄱ’이 ‘ㅇ’로 바뀌는 현상, 서술격 조사 뒤에서 ‘-오-’가 ‘-로-’로 바뀌는 현상, ‘-옛-’이 ‘두-’ 아래에서 ‘-잇-’으로 바뀌는 현상, ‘-아/어-’가 ‘-거-’나 ‘-나-’로 바뀌는 현상, ‘하야’에서 부음이 덧나는 현상 등이 언급되고 있다(pp. 112~4).

그 외, 관형사·부사·감탄사(제 8 장), 품사의 통용(제 9 장), 단어 형성의 원리(제 10 장) 등이 형태론에서 다루어져 있다.

제 11 장 이하는 통사론이다. 제 11 장에는 문장 성분이 다루어져 있는데, 문장 성분은 어절로 성립되지만 구나 절로 성립되기도 한다(pp. 174~6). 제 12 장에는 사동문과 피동문, 시제·서법·동작상, 높임법, 선어말 어미 ‘-오-’의 기능, 문장 종결법, 부정문, 문장과 이야기 등, 형태론에서 확인된 문법 요소들의 통사적 기능과 그 의미가 소상하게 서술되어 있다. 학계의 업적을 망라해서 평이하게 서술되어 있으나 군데군데 저자의 독특한 견해가 반영되기도 한다. 피동문과 능격문의 관계(pp. 218~221), 관형사형 어미 ‘-ㄹ’, 의문형 어미 ‘-려’, ‘-ㄹ다’를 ‘\*-린’(p. 237)과 ‘\*-리녀’

(p. 123, 127, 292), ‘\*-린다’ (p. 124, 127, 294)로 파악하는 일, 중세국어 상대  
 경어법에 반말을 하나의 등분으로 추가하는 일(pp. 125~6, 266, 296~7, 299),  
 관형사형 어미를 보수적인 평서형 어미 ‘-니라’에서 ‘-이라’가 떨어져 형  
 성된 것으로 파악하는 일(p. 127, 280~1), 경계문 설정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 
 일(p. 301), 인용 동사에 타동사 표지 ‘-아/어-’가 통합되어 나오는 것을 근  
 거로 인용절을 목적어 명사에 상당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일(pp. 317~8)등  
 이 그것이다.

이상 주마간산격으로 본서를 대충 살펴 보았다. 현재 필자의 처지로서  
 는 본서의 서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나, 외람된 것을 본의 아니게 저  
 지른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. 지금까지 학계에서 이루어진 업적  
 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중세국어 문법의 전체 윤곽을 이만큼 짜임새 있게  
 제시해 주신 저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글을 맺는다. \*

## 兒童의 言語發達

—韓國兒童의 段階別 位相—

李 仁 燮 著

新菊版 297面. 1986. 9. 開文社

盧 命 完

(韓國教育開發院, 國語教育學)

비록 전체 면수는 297면밖에 되지 않지만, 이 研究書는 국내 문헌 192  
 개, 일본 문헌 16개, 영문 문헌 129개, 총 337개의 문헌을 참고하면서  
 한국 아동의 한국어 발달을 기술한 방대하고도 의욕이 넘치는 종합 연구